

울란우데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와 평가

여 인 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20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푸틴 현 러시아 총리의 대통령 시절인 2000년 평양과 2001년 모스크바 및 200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3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8월 24일 시베리아 동부의 바이칼 호수 인근에 있는 부랴티아 자치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의 군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금번 북러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정상회담의 러시아 측 의도

첫째,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회복 모색이다. 러시아는 북한이 접경국이며 구소련에 의한 사회주의체제 이식국가라는 점에서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어야 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러시아의 국력 약화와 한러 관계의 발전 등으로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러시아는 특히 최근 중국의 부상 및 북중 관계 긴밀화에 직면하여 대북 영향력 회복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내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기조 중 하나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를 위한 출발점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으로 간주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의 또 다른 대남 도발은 APEC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는 대북 경협 확대,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 등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통해 동북아 지역정세의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남북대화의 정상화라는 3가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3단계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따라서 7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과 28~29일 뉴욕에서 미·북 대화가 개최되었으나, 6자회담의 재개 전망은 관련국들 간의 이견으로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6자회담을 중시하고 있는 러시아는 조속히 회담이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는 남북러 3국을 잇는 TSR-TKR·가스전·송전선 연결 등의 3각 경협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한편, 동북아 정세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3대 세습을 위한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고 에너지와 식량 및 군사무기 부품 등을 지원받음으로써 내년 '강성대국 원년'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중국에 편향되었던 정책을 재조정하여 중·러 양국으로부터 정치·경제·외교적 실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상회담의 평가

금번 김정일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 재개, 양국 경협 확대, 남북러 3각 경협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금번 북러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양국 간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복원되었다. 양국은 2000년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 체결과 2000~2002년의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난과 북핵 문제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해 소원한 관계에 있었다. 금번 정상회담에 양국의 최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현안 등을 협의함으로써 관계 복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입장 지지이다.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핵과 우라늄농축 시설들에 대한 IAEA 전문가들의 사찰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가시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번 회담에서 북·러 양국 정상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해 9.19 공동성명을 동시행동의 원칙에 기초해 이행함으로써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기본 입장을 지지한 것이다.

셋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확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북한은 한반도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러시아 측으로부터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의 대북 원유 지원과 나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 등의 문제가 협의되었을 것이다. 또한 회담에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간 고위 군인사 교류 확대와 군사장비 부품 제공 등의 문제도 협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위한 3국 특별위원회의 제의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자국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지지함으로써 가스관 건설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3자 특별위원회의 발족에 합의했다고 한다.

다섯째, 북한의 대중 편향정책 완화이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은 단지 중국과만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금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그동안의 대중 편향정책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의 고려사항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북한 언론은 러시아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북한 측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100억^m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은 남북러 3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주체와 가스 공급가격이 미리 결정되어야 하고 북한의 수송관 폐쇄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